종교문화 현상에 인문학 사유 담다

종교문화硏, 〈종교인문학〉 창간

종교 문화 현상에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담은 월간 온라인 칼럼이 발행된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종교인문학〉 1호를 창간·발행했다. 첫 호에는 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인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가 '생로병사'를 주제로 한 자전적 에세이가 실렸다.

월간 온라인 칼럼을 표방하는 〈종교인문학〉은 매월 200자 원고지 50~60매 분량의 에세이 칼럼을 수록한다. 올해 주제는 '생로병사'로 투고 필자들의 차별적 관점이 반영된 글을 모으자는 의도가 반영됐다.

종교문화연구소는 "월간 〈종교인문학〉은 해마다 주제를 정해 매월 한편씩 글을 싣고 이를 강연, 출판 등과 연계해 대중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종교인문학 대중강연, 종교인문학 총서가 연계돼 기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대선 공약 나와야"

김상겸 교수, 종평위 토론회서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종교차별 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공약으로 제시돼야한단 의견이 제시됐다. 박근혜 前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이 7개월이나 앞당겨진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차별금지법 관련 공약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3월 31일 열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주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대선공약과 관련해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과 증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여부"라며 "특히 남녀차별 문제 뿐 아니라 종교차별의 문제는 대선후보자들이 풀어야할 숙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던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및 차별을 원인으로 한 증오범죄 방지 제도개선이 공약으로 제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부처님 原音 전파 30년… 초기불교 대중화 견인

창립 30년 맞은 (사)고요한 소리

1980년대 한국불교에서 초기불교는 불모지와 같았다. 초기불교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원음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필요했다. 초기불교 불모지였던 당시 오롯이 빠알리어 원전 번역을 목적에 두고 창립한 첫 원전 번역 단체가 (사)고요한 소리다.

(사)고요한 소리는 1987년 활성 스님이 중심이 돼 창립됐다. 1992년에는 사단법인으로 전환됐다.

(사)고요한 소리의 주요 사업은 역경불사다. 이들 단체는 근본불교 대장경인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불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스리랑카 불자출판협회(BPS)에서 간행한 양질의 불서 및 논문들을 국내에 번역·소개하고 있다.

30년 동안 △금구의 말씀 △소리 △법륜 △보리수잎 등 4개 시리즈를 통해 81권의 책이 출간됐다. 4개 시리즈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 '금구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이며, '소리'는 활성 스님 법문을 수록했다. '법륜'은 경전 교리를 깊게 소개하고 있으며, '보리수잎'은 생활불교, 불교실천론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폭 넓은 주제의 책자들은 초기불교는 물론 불교실천론, 응용불교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였다. 특히 초기불교·근본불교가 한국불교계에서 대중화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빠알리어 원전 번역 위해
활성 스님이 1987년 창립

철학·실천론·수행법 담아낸
법륜·보리수 등 시리즈 내놔

15일 중도포럼 등 기념행사
중도적 관점서 현 시대 조명
활성 스님 첫 대중 법문 '눈길'

변영섭 (사)고요한 소리 공동대표(前 문화재청장)는 "근본불교·불교철학·심리학·수행법 등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이 책들이 실천불교의 진수"라면서 "지난 30년 간 불법과 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사)고요한 소리의 운영 특징은 '무주상보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역점 사업인 책자를 발간에 있어서도 윤문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으로 이뤄진다. 윤문팀은 매주 토요일 모여 하루 종일 번역·윤문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사)고요한 소리는 책값은 30년 전과 같이 500원과 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모두 '자본주의를 벗어난 보시·봉사의 순환을 만들자'는 회주 경봉 스님의 뜻이 반영됐다.

변 대표는 "활성 스님은 평시 '돈 받지 않고 하는 일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말씀한다"면서 "윤문 번역봉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공부가 됨을 알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사)고요한 소리는 기념행사로 불교의 중도에서 공생의 길을 찾는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중도'를 주제로 한 3년 기획 시리즈 중 첫 번째로 2019년까지 2번 더 열린다.

오는 4월 15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도(中道), 이 시대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중도포럼에서는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중도적 고찰부터 초기불교 안에서 중도 실천·수행 등이 조명된다.

주요 발제자로는 양형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 홍창성 미네소타주립대 철학과 교수,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 백도수 능인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 김재성 능인대학원대 명상심리학과 교수, 이유미 스리랑카 캐라니야대 불교철학 박사가 참여한다.

포럼에 앞서 (사)고요한 소리 창립 30주년 행사도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지리산 토굴서 수행 중인 활성 스님이 처음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법문을 설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중도포럼의 좌장을 맡은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고요한 소리는 대승과 선 중심의 한국불교에서 초기불교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귀결점은 '중도'다. 일체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속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중도사상 이외는 없다는 사실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숫자로 본 고요한 소리 30년

1987
고요한 소리 창립연도

81
금구의 말씀·소리·법륜·보리수잎 시리즈 총 권수

50
윤문 참여 봉사자 연평균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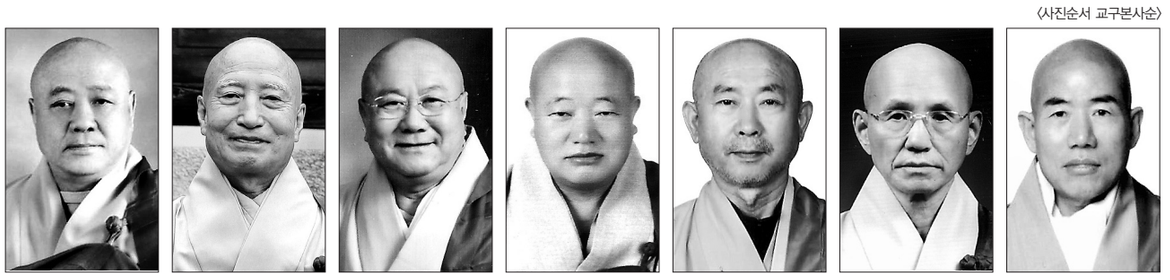
500 and 1000
30년째 변함없는 책값



조계종 새 원로의원 7인 만장일치 선출

4월 6일, 원로회의 부의장엔 세민 스님

〈사진순서 교구본사순〉



철웅 스님 | 설정 스님 | 법타 스님 | 성타 스님 | 지하 스님 | 월주 스님 | 보선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가 추천한 신임 원로의원 7인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4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53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가 추천한 원로의원 철웅(마곡사)·설정(수덕사)·법타(은해사)·성타(불국사)·지하(쌍계사)·월주(금산사)·보선(대흥사)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는 現 원로의원 밀운·원명·명선·도문·월서·혜승·현해·고우·법흥 스님의 임기가 오는 4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부의장 명선 스님이 사임원을 제출해 후임으로 세민 스님을 선출했다. 원로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전원 임기가 만료될 시 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원로회의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신임부의장 세민 스님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부의장 임기는 올해 12월 11일까지. 따라서 새 원로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세민 스님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기존 원로의원 임기만료 앞서
부의장 임기는 12월 11일까지
원로회의법 개정안 추후 논의

의장단 동시 사임 등으로 인한 법리적 보강 등의 내용을 담은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원로의원 9명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새 원로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추후 회의를 소집해 다루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국비구니회, 5월부터 의료비 지원

백천문화재단과 협약… 복지기금 마련해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복지 향상을 위해 5월부터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3월 31일 서울 법룡사 전국비구니회관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비구니회 위상과 회원 소속감을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나설 것을 밝혔다.〈사진〉



전국비구니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백천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편익 증진을 위해 고민하던 때 백천문화재단 측에서 복지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화재단은 각각 매월 200만원씩 예산을 편성, 5월부터 12월까지 총 3200만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비구니 스님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비구니회 소속 비구니 스님과 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에 입소한 비구니 스님이며, 본인부담 의료비 20%(1인 10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전국비구니회는 지속적인 복지기금 모연을 통해 지원규모와 대상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이외에도 △불교적 호스피스 교육과정(9/8~10) △종단사업 지주회사 도반HC와 달력 및 생수사업 협약 △불교영어통번역과정(9/13~17)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찰음식 승가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회칙 개정을 통해 조계종단 승적과 함께 전국비구니회에 등록한 회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비구니의 자존과 정체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명사 법계 추대위원회를 종단 법계 법령에 맞춰 신설하도록 했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追 원효보살 열반 1331주기 추모대재 慕

대한불교 원효종의 종조이신 원효보살의
열반 1331 주기 추모대재에
종도 및 불자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시어
원효보살님의 뜻을 기리고 추모합시다.

일 시 : 불기 2561(2017)년 4월 25일(화) 10시
장 소 : 경주 서라벌 대학교 원석체육관(웰빙센터)
(경북 경주시 태종로 522)

종 정 설제 정광

원로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총무부원장 보원 규정원장 성암
상벌위원장 일륜
원로위원 혜초 수경 혜봉 성호 법진 서응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의원 법진 자광 법원 현수 지광 향봉 수월 자성 일륜 성죽 마명 청암
선거관리 위원장 석불 선거 관리위원 현수 무공 정운
종학원장 옥천 고시원장 자광 의전실장 석해 포교원장 선운
문화원장 효산 복지원장 범일 교육원장 행광
부산교구원장 석불 울산교구원장 지광 대구교구원장 석해 경남교구원장 월함 전북교구원장 경오
제주교구원장 법원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경북교구원장 성죽 강원교구원장 성암
(사)대한선불교원효종 이사장 청암

대한불교원효종

종 정 설제 정광 총무원장 법광 우석
주소 : 경주시 충현로 3길 4-1 TEL : 054)743-0700